

지난 6일 임진강에서 갑작스레 불어난 물 때문에 여러 명이 실종? 사망했다. 이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 “지금 어떤 시절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긴급한 사고가 일어난 급박한 상황을 파악을 띄워서 알려주던 시절도 아니고, 모든 재해방지 체계가 일사불란한 시스템으로 갖추어진 21세기가 아닌가? ...” 의문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불자 세상보기

이병두
칼럼니스트

모두가 의무·책임 다해야 좋은 나라

그런데 설사 사람 목소리나 봉화로 위험을 전하던 시절에도 이런 식의 사고는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이런 식의 사고는 장비의 현대화 문제라기보다는 인명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의 직접 원인이 북한에서 남쪽에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고 임진강 상류의 댐을 방류한 데서 비롯됐다. 그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그런데 왜 전 국민이 화를 내며 정부를 성토할까?

이번 사고가 발생한 곳은 다른 지역과 다르다. 남북이 대치하며 항상 긴장이 감도는 곳이다. 군 당국이 다른 어느 곳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과 장비를 배치하고 신경을 곤두세우며 한 찰나도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지키고 있는 곳이다.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과연 우리 군이 긴장하고 있는가?”하는 의문이 든다. 보호병이 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목격, 확인하고 삼급자에 보고

한 것이 오전 2시 50분경이었고 단계를 거쳐 참본부까지 상황보고가 이루어진 것이 5시 35분이었다고 한다. 세 시간에 가까운 그 사이는 안전 공백 시간이었던 셈이다. 실제로 강 하류에서 훈련 중이던 전차부대에 아무런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5시 15분경 물이 불어나자 병사들은 전자 한 대를 버려둔 채 간신히 몸을 피했다고 한다.

그 뿐만이 아니다. 임진강 물이 불어나 수위가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는데도 군 당국은 군이

의 관계기관이나 민간에 이 사실을 하나도 알리지 않았다. 임진강 수위 상승이 국가 기밀도 아닐 것이고, 혹 100보를 양보해서 그것이 최고의 국가기밀이라고 할지라도 우선 훈련 중인 장병을 포함한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면 분초를 다투어 상황을 널리 알리고 함께 대비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는가?

군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그 존재 이유를 스스로 무시하고 책임을 회피한 군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

군을 위해 쓰이는 막중한 국가 예산을 부담하는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는데도 국민들은 계속 이 무거운 부담을 감수해야만 하는가?

이번 사고의 제1차 책임이 군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정부 기관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매년 민?관?군 합동으로 여러 차례 재난 대비 훈련을 하고 사고 대응 매뉴얼을 논의했으면서도 막상 사고가 생기면 우왕좌왕하며 어찌할 줄 모르고 서로 “저쪽에 책임이 있다”며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살기 좋은 나라는 국민 소득이 높은 곳이 아니다.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 살아가는 국민이하며 이런 사고 위험 없이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살기 좋은 나라이다.

맹자(孟子)는 “하지 않는 것이지,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不爲也, 非不能也.)”고 했다. 여기서 한 번 정부 당국자에게 물어보자, “우리 정부는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을 할 능력이 없는가, 아니면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인가?” 맹자는 또 이런 말도 하였다. “하늘이 내리는 재앙은 그래도 피할 수 있으나, 자기 스스로 지은 재앙에는 살 길이 없다.” 정부 당국은 이번 사고가 ‘스스로 지은 재앙’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만들

어내지 않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불만평 박구원

아기많이 낳는게 나라 사랑입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형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중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인사출판** www.hyunbul.com
 FAX (02)737-0698 **실시간 뉴스 토크뉴스** www.buddhanews.com
 광고국 (02)2004-8213-7 **불교포탈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FAX (02)737-0696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지사안내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영주지사 : (054)634-3429
 전북지사 : (063)910-519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9월의 테마·독서

요즘 학부모들이 학교 교무실에 오면, 학생들이 공부할 시간에 틀만 나면 PC방에 가거나 집에서 몰래 컴퓨터 게임에 몰두하여 걱정이 태산이라야 하 소년들을 하곤 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게임을 못하게 하면 크게 반항한다고 하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 학교현장에서 장래희망이 무엇인가 조사를 하면 90% 가까이 컴퓨터 프로그래머라고 말합니다. 이런 반면에 한 달에 책 한권을 읽지 않는다는 학생들이 대부분이 아쉬운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컴퓨터 황제 빌 게이츠의 독서에 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업한 그가 모든 시간을 컴퓨터와 그와 관련된 전문서적과 함께 보낼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다. 그는 “독서를 많이 하지 않고서는 박식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멀티미디어시스템은 정보를 대량으로 전달하지만, 구체적인 정보는 역시 책으로 전달됩니다. 나는 평일에

독서삼매경도 수행의 한 방법

는 한 시간 주말에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반드시 책을 읽습니다. 관심분야를 넓히기 위해서 일간지는 꼭 읽고 매 주 잡지 몇 권, 주간 한권도 읽습니다. 만약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만 읽는다면 다양한 지식으로 인한 이득을 볼 수 없기에 자서전, 전기, 회상록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생 여정을 살피고 사색서적, 과학서적에도 관심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게이츠도 서판 재단을 설립했고 세계 최고 기부액인 2000만 달러를 도서관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또한 가지 독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포위망에 든 러시아의 한 도시에서 적에 의해 도로가 차단되었고 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먹을 것, 땀 것이 제대로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이 추위와 기아로부터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녀의 몸으로 그 어려운 시간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책을 읽었어요.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 등을 읽고 또 읽었어요. 아마도 몇 백 번은 읽었을 거예요.” 그녀가 살아남긴 대답이었습니다. 책읽기를 매우 좋아한다는 러시아민족의 대표적

인 독서이야기입니다. 육체적·정신적 성장의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독서의 영향은 그야말로 엄청납니다. 한마디로 독서는 만병통치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한 청소년들, 소위 ‘문제아’에게 독서치료의 효과가 커지고 있고 교과학습의 내용을 심화시키며 사고력 및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등 종합적인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독서인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독서습관 형성을 위하여 학부모들도 TV와 컴퓨터를 멀리하고 무조건 공부하라는 야단보다는 먼저 책을 들고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한 낮 더위가 아직 기승을 부리고 신종플루가 유행하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불자 가정에서부터 독서삼매경에 빠져드는 것이 수행의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신형영
대전 보문중 교장

社說

산사음악회의 포교 아이콘은?

가을빛이 여력하다. ‘일엽홍 천하추(一葉紅 天下秋)’라 했다. 한 잎만 붉어도 천하에 가을이 온 줄을 알겠다는 것이다. 산사음악회를 알리는 현수막을 내 건 사람들이 많다. 가을은 산사음악회의 계절이기도 하다. 근래 들어 불교계가 세상을 향해 베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공양’을 꼽으라면 단연 템플스테이와 산사음악회 그리고 산사요리가 우선일 것이다.

각종 문화축제를 통해 사찰이 얻는 무형 유형의 이익은 매우 크다. 사찰이 가지고 있는 문화콘텐츠는 웰빙 시대에 매우 적합하다. 이를 잘 개발하여 세상에 공양 올리는 것은 불교계가 해야 할 당당한 책무일 수도 있다. 사찰요리와 산사음악회 그리고 템플스테이는 우리시대에 있어 포교의 가장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개의 사찰이 진행하는 문화행사가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포교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통계 내는 경우는 보기 어렵다. 또 사찰이 진행하는 문화행사가 어떤 측면에서 효율성을 인정받고 어떤 개선이 요구되는가를 꼼꼼히 체크하고 평가하는 경우도 드물다. 이는 문화 콘텐츠의 적극적인 활용의 자세가 아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분석해야 한다. 사찰의 문화행사는 불교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전법의 촉매를 만들어내는데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산사음악회의 경우 음악을 통해 불교와 인연을 맺어주는 중요한 수단인 된다. 보다 내실 있는 기회와 유쾌한 진행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산사와 인연 맺는 음악회가 풍성하게 열리길 기대한다.

노후보장이 청정수행의 ‘힘’

사회복지법인 연꽃 마을이 스님들의 간병비를 지원한다는 소식이다. 조계종 뿐 아니라 종단협의회에 가입한 종단 소속 스님 모두에게 해당되는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박수를 보낼 일이다.

세상이 고령화 사회로 변해듯이 승단 역시 고령화 시대를 맞았다. 무소유를 원칙으로 하는 승단에서 노후복지가 부실하다는 것은 수행에 결정적인 취약점이다. 스님들의 노후보장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는 한 무소유의 정신을 지키면서 수행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사설사업을 짓는 불사가 끊이지 않고 대중생활의 정정 기풍이 사라져 가는 것이다. 특히 조계종의 경우 노후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생각만큼 획기적인 제도 정착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많은 스님들이 ‘토굴’이라는 명분 아래 임자를 지어 사유하게 되고 재산 유지를 위해 이리저리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수행자의 위와 계율정신이 한꺼번에 퇴색하는 것이다.

노후보장이 의무적인 수행의 밑받침이란 점은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각 종단의 노후보장제도가 활성화 되지 않은 가운데 연꽃마을의 간병비 지원은 승단에 새로운 희망이다. 동시에 노후보장제도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역설하는 상징이기도 하다.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 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디브이디) 출시 - 궁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사주명식을 작성하는 즉시 확실하고 선명하게 운명이 보입니다. - 그래야 역학입니다 -**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10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한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인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중진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도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해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셨습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쫓아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히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 (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게는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대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인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 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이 교재를 만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장인이 눈을 떠서 대광명을 보듯이 신속하고 틀림없는 역학적 개인에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전화를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십시오.

◆ 구입금액 : 일시불은 135만원, 할부가격은 15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8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3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351-0001-3753-03 (예금주 : 대한불교일월출 추명사)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450번지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진가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매 6개월만에 9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반수 이상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궁중비법입니다. 책임집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공부합니다

- http://www.esaju84.co.kr
-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성수철학원** 또는 **대구철학원** 을 입력해보세요.
- DVD 동영상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예약 받습니다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 완성 (국내외 제자 4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30일 완성) 풍수지리(양택, 음택)포함 (40일 완성)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인 ※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해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개인지도 받으실 분 숙식하시며 쾌적하게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사단 대 한 불 교 법인 사주명리 연구학회 **추명사 백운 성수, 도영 합장**